【사례발표 3】

한국의 전통줄다리기와 공동체

허 용 호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1. 여는 말

이 글은 한국의 전통줄다리기의 하나인 기지시줄다리기를 대상으로 한다. 기지시줄다리기를 중심으로 그 속에서 그 연행 과정에서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와 그러한 일시적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인 전승공동체에 대한 필자의 단상들을 피력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단상들을 피력하는 것이기에 아직 논의가 성글고, 일관성을 갖고 있지도 못하다. 하지만 공동체를 중심으로 줄다리기를 재구성해 보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 시점을 전통줄다기리의 현재에 두고 접근하는 것이기에 이전 논의와는 다른 견해도 마련될 수 있으리라 예상해 본다.

논의는 현재의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기지시줄다리기 연행공동체의 구성 양상과 그 특징, 그리고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공동체가 갖는 의미 등이 여기서 논의될 것이다. 이어지는 논의에서는 기시지줄다리기 연행을 가능하게 하는 지속적이고도 관습적인 공동체의 양상을 살펴본다. 연행에서 형성되는 연행공동체와는 다른 속성이 여기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속성은 연행에서 형성되는 공동체와는 대립되는 것이지만, 묘한 긴장 관계를 가지며 기지시줄다리기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이루어지는 논의는 앞선 두 논의에서 나타난 현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의 특징과 과거 ‘줄 난장 공동체’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것이다. 분명 차이가 있고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낯익은 현 전승공동체의 성격이 여기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전통줄다리기에서 기지시줄다리기가 갖는 독특한 위상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줄다리기 연행과 지연공동체의 재편

아래의 사진은 2014 년에 벌어졌던 기지시줄다리기의 한 장면이다. 그야말로 장관이다.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 만들어내는 이 장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장관을 연출해 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 장관을 가능하게 만드는 집단은 어떤 집단인가, 줄을 당기는 이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 그들이 연행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공동체는 또 어떤 것일까 등의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를 따져보기로 한다.

[사진] 2014 년 기지시줄다리기

필자가 품은 일련의 의문들에 대한 답의 실마리는 '기지시줄다리기'라는 명칭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명칭으로 보아 기지시줄다리기의 장관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당연히 기

지시리 사람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기지시리가 속해 있는 당진 지역 사람들로 그 범위를 확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줄다리기 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지시리나 당진 지역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줄다리기 연행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 신문 기사를 참고해 볼 수 있다. 아래에서 인용하는 기사를 보면 줄을 당기는 사람들은 기지시리, 나아가 당진 지역 사람들에 한정되는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 75 호인 '기지시줄다리기'가 13 일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한 모습을 보이며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 했다.
>
> 지난 10 일부터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흐린 날씨에도 30 여만 명이 참여했으며, 주 행사인 줄다리기를 비롯해 한국전통줄다리기 연합단체 결성을 위한 대표자 회의, 제 6 회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혈액형 줄다리기 등 이색 줄다리기, 제 1 회 충남도지사기 전국풍물대회, 전통 혼례의식 등이 열렸다.
>
>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13 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줄다리기에 참여할 관람객들의 접수를 받고 소지쓰기와 줄 제작 체험, 농악 공연 등으로 흥을 돋웠으며, 오후 1 시 줄고사를 시작으로 총 무게 40 톤의 길이가 각 100m 인 암줄과 수줄을 장장 2 시간여에 걸쳐 줄 제작장에서 박물관까지 1000m 를 옮기는 줄나가기 길놀이 행사가 펼쳐졌다.
>
> 줄나가기 후, 오후 3 시 30 분부터는 축제의 절정인 줄다리기 행사가 3 만여 명의 관광객 참여자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수상팀과 수하팀으로 나눠 줄로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
> 기지시줄다리기는 3 차례에 걸친 경합을 벌여 승부를 가리는데, 수상팀이 이기면 만사가 태평하고, 수하팀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모두가 화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20]

밑줄 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줄다리기 연행에는 관광객도 참여할 수 있다.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줄 당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한 참여 경로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언급된 기사가 있어 인용해 보기로 한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 75 호인 '기지시줄다리기'가 역대 가장 많은 당진시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15 일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한 모습을 보이며 나흘간의 대 장정을 마무리했다.
>
> 지난 12 일부터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총 참여인원이 20 여만 명을 가뿐히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행사 관계자는 "지금까지

20 최근수,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 대화합의 마무리 – 기지시줄다리기축제, 30 여만 명 참여해 –」, 『大田투데이』, 2014.04.13.,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97 (2015.3.29).

> 치러진 행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찾아온 것 같다. 특히 주말인 14-15 일에 발길이 계속 이어져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3 박 4 일 동안 행사장에서는 주 행사인 줄다리기를 비롯해 도지사기 궁도대회와 3 개국 초청 기지시줄다리기배 전국 줄다리기 선수권대회 개최, 22 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전국 민속줄다리기 시연 등 다양한 행사가 어우러져 치러졌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15 일에는 오전 9 시부터 줄다리기에 참여할 관람객들의 접수를 받고 소지쓰기와 줄 제작 체험, 택견 시연 등으로 흥을 돋았다. 오후 1 시부터는 줄고사를 시작으로 총 무게 40 톤에 각 길이가 100m 인 암줄과 수줄을 장장 3 시간여에 걸쳐 줄 제작장에서 박물관까지 옮기는 줄나가기 길놀이 행사가 펼쳐졌다.
>
> 1,000 여 명의 농악패와 200 여 명의 기수들이 나열해 수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단결된 구령으로 몇 시간 동안 줄을 옮기는 모습은 진풍경이었다. 거대한 줄을 옮기는 데 참여한 시민과 관광객들은 육중한 줄의 무게에 땀을 흘리면서도 모처럼 화창한 봄 날씨 속에 찾은 행사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오후 4 시부터는 축제의 절정인 줄다리기 행사가 3 만여 명 이상의 관광객 참여자와 주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해, 수상팀과 수하팀으로 나눠 줄로 하나 되는 대화합의 장을 연출했다. 행사장인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운동장은 참가자들과 관광객들로 가득 차, 진행자도 "500 년 기지시줄다리기 역사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
> 줄다리기 행사에는 이철환 당진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정용선 충남지방경찰청장, 윤수일 시의회 의장, 이명교 당진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김동완 제 19 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참석했다. 안희정 도지사는 “충남이 앞으로 황해경제의 중심이 되길 바란다.” 며 줄다리기 시작을 알리는 징을 울렸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이제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로 가게 될 것”이라며, 기지시줄다리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기지시줄다리기는 3 차례에 걸친 경합을 벌여 승부를 가리게 되는데, 수상팀이 이기면 만사가 태평하고, 수하팀가 이기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어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모두가 화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는 수상팀이 2 번을 연이어 승리, 만사가 태평해져 지난해부터 지속되어온 경기침체에서 벗어나 당진시가 더욱 발전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했다.
>
> 시 관계자는 “한국의 대표 민속 줄다리기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 전국 민속줄다리기 초청 시연행사와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 개최, 22 개국 주한외교사절단 초청 등을 추진하게 됐다. 이제는 기지시줄다리기가 국내 축제가 아닌 세계 축제로 뻗어나가고 있어, 앞으로 줄로 세계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21]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기지시줄다리기의 연행공동체는 기지시를 넘어 당진 전체, 나아가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 외국인까지 포괄하는 거대한 규모를 띤다. 그들이 줄다리기 연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하게 열려있다. 그런데 이러한 줄다리기 연행공동체는 일시적으로 형성된다. 줄을 당기는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만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인 것이다.

---

21 오동연,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 20 여만 명 참여 -」, 2012.4.15., 『e-당진뉴스』, http://www.edjnews.com/sub_read.html?uid=26053&section=sc7&section2=(2015.3.26).

그 공동체는 두 개의 편으로 구성된다. ‘수상’과 ‘수하’라는 두 개의 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수상편은 숫줄을 당기고 수하편은 암줄을 당긴다. 두 개의 서로 다른 편은 줄을 당기며 경쟁한다. 그 경쟁은 치열하다. 기지시줄다리기 주변에는 “수하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수상이 이기면 온 나라에 평안이 깃든다.”는 속신이 떠돈다. 이 속신을 거론하며 ‘기지시줄다리기는 이기고 지는 것 보다는 모두가 화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하지만 경쟁에서 승리한 편에 대한 기지시줄다리기 속신은, 두 편 사이의 치열한 경쟁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암줄의 승리를 보장해주는 줄다리기 관행과는 달리, 기지시줄다리기에서는 숫줄을 당기는 수상편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다. 2012 년의 경우에도 수상편이 이겼다. 이를 염두에 둔다면, “수하가 이기면 풍년이 들고, 수상이 이기면 온 나라에 평안이 깃든다.”는 속신은 숫줄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안전장치일 수도 있다.

어쨌든 수상과 수하라는 두 편의 존재는 기지시줄다리기 연행공동체가 뜨내기들의 잠정적인 군집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것은 수상과 수하라는 편 가름이 기지시와 그 인근 지역의 지연공동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은 32 번과 34 번 국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32 번과 34 번 국도의 남쪽을 수상, 북쪽을 수하로 구분하는 것이다.[22] 이에 따라 나누어지는 기지시와 인근 지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23]

편	지역
수상	• 기지시리 샘건너, 기지시리 시장통 • 송악면 가교리, 송악면 방계리, 송악면 본당리, 송악면 반촌리, 송악면 봉교리, 송악면 광명리 •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수하	• 기지시리 공쟁이, 기지시리 안틀모시 • 송악면 복운리, 송악면 중흥리, 송악면 오곡리, 송악면 부곡리, 송악면 월곡리, 송악면 정곡리, 송악면 한진리, 송악면 가학리, 송악면 석포리, 송악면 고대리 • 당진읍,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정미면, 대호지면

[표]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 양상

22 오석민 외,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원, 2006, 135 쪽. 그런데 수상과 수하의 구분은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일제강점기에는 그 경계가 대체로 합덕에서 기지시에 이르는 국도 32 호선과 기지시에서 한진리로 이어지는 619 호 지방도였다. 두 도로의 동쪽은 물 아래이고 서쪽이 물 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산에서 당진을 거쳐 서산까지의 국도 34 호선과 32 호선을 경계로 삼아서 북쪽은 물 아래가 되

이러한 편 가름의 양상은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 지연을 바탕으로 한 두 개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 지연공동체의 편싸움에 당진 지역 외부 사람들 역시 끼어들 수 있다. 경기 · 서울 · 강원 지역은 수상편으로, 충청 · 전라 · 경상 지역은 수하편으로 참가하는 것이다.[24] 당진 지역 외부의 사람들이 지연공동체 중심의 편 가름에 포함된 것이다. 지속적인 지연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외부의 사람들을 포괄한 것이다.

[사진] 수상과 수하의 편가름 양상
(오석민 외, 『기지시줄다리기』, 136 쪽)

기지시줄다리기 세계에는 수상과 수하라는 지역만이 존재한다. 기지시를 중심으로 한 자체 기준으로 남한 지역이 재편된다. 그러한 지역 재편은 흥미롭다. 여전히 존재하는 서울/지방, 중앙/변두리라는 이원론적 가치 위계를 무화시키는 발상을 여기서 발견한다. 기지시를 중심으로 지역이 재편되고 있다. 김열규가 "문화적인 악의 유산"[25]이라고까지 했던 가치 위계가 여기서 이미 깨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적어도 기지시줄다리기

고, 남쪽은 물 위로 편성한다. 결국 편의 구분은 어느 시점에서 명백한 기준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점차 시대적 변화, 특히 인구수의 증감에 맞추면서 편의에 따라 구분하게 된 듯하다. 지금도 참여할 마을을 파악한 연후에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도 하며, 나아가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경기·수도권·강원도와 충청·전라·경상도를 구분하여 배정하기도 한다.

23 이 표에서 정리된 각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은 2006 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2012 년 당진시 승격 이후 변화된 행정구역 명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24 오석민 외, 앞의 책, 135 쪽.

25 김열규,"구술 문학과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제 19 집, 2004, 3 쪽.

연행의 세계에서는 '중앙/변경', '중심/가장자리'에 덧붙여진 기성의 가치 위계가 발붙이지 못한다. 이른바 지방이 스스로에게 끼얹는 비하 의식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는 "협의의 지역에 묶인 구심적이고 배타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광역화되고 원심적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26] 그 공동체는 "초월적 공동체"[27]이다. 그 공동체는 한양명이 "집단 외적 열림" 또는 "자족적 지역성에 해방되는 횡적 '열림'의 상태"라 언급한 것과도 유사하다.[28]

3. 줄다리기 전승과 연대의 성격

앞서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을 통해 형성되는 공동체가 열려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지역 외부로의 개방을 통해 흥미로운 연행공동체가 구성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그 열림은 줄을 당기는 그 자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줄 당기기를 전후해서 진행되는 제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있다. 재료 준비, 새끼줄 및 젖줄 꼬기, 줄틀 꺼내고 설치하기, 몸줄 꼬기, 곁줄 꼬기, 줄 머리 만들기, 곁줄과 젖줄 달기, 줄 쌓기, 줄 머리 세우기, 비녀장 제작 등의 전 과정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다.

기지시줄다리기에서 사람들의 참여 경로는 열려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 줄 제작은 한 달 이상의 기간[29] 동안 연 인원 1,000 여명이 동원된다. 여기에는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관광객, 군 장병 등까지 참여한다. 또한 일당을 받고 참여하는 인부들도 있다. 그들은 기지시리를 비롯하여 가교리, 방계리, 반촌리, 가학리, 정곡리, 부곡리, 시곡리 등 인근 지역 사람들로, 여러 차례 줄을 꼬아 본 경험이 있는 사람

---

26 위의 글, 6 쪽.

27 김열규는 "초혈연, 초지연, 그리고 초전통문화에 걸친 공동체성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잠정적으로 '초월적 공동체성'이라 명명한다. 필자의 '초월적 공동체'는 이러한 문맥에서 사용한 것이다. 같은 글, 같은 쪽.

28 한양명, 『한국대동놀이 연구 – 편싸움을 중심으로 –』,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83 쪽.

29 2015 년의 경우, 2 월 23 일부터 줄 제작에 들어갔다. 3 월 8 일까지 잔줄을 꼬고, 큰줄 꼬기는 3 월 13 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곁줄 제작이 3 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시작돼", 『연합뉴스』, 2015.02.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7/0200000000AKR20150217067400063.HTML?input=1179m (2015.03.30.).

들이다.[30] 하지만 줄다리기 전체 연행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이면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기지지줄다리기 보존회이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줄을 당기는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재료 준비에서부터 줄 꼬기, 줄 나가기, 줄 당기기 등을 거쳐, 이후 줄 처리까지의 과정이 기지시줄다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줄다리기 전체 연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지시줄다리기는 특정한 해에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벌어지는 것이기도 하다.[31] 특정한 해에 벌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 연행 과정이라 한다면, 그러한 과정이 매년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줄다리기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의 전 과정과 그 전승에서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를 중심으로 줄다리기 전승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문맥에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를 전승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재료 마련에서부터 줄을 당긴 이후의 정리까지 맡아서 한다.

줄다리기 전 과정의 중심에 자리하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1986 년에 발족했다.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예능보유자 2 명, 전수교육조교 1 명, 이수자 16 명, 전수생 10 명 등 총 29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달 전승 교육을 한다. 줄 제작을 비롯한 줄다리기 행사 전반에 대한 교육이 보존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자들은 대부분 기지시리와 그 인근 마을에 거주한다. 각자의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으면서,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된 교육과 각종 행사에 참여한다. 수많은 인원이 참여하여 만들어내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장관은, 보존회 구성원들의 흘린 땀방울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줄 당기기가 끝난 후에 어지럽게 흩어진 줄을 모두 치우는 일도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몫이다. 그들은 그 탄생에서 해체까지 줄과 함께 한다. 매년 새롭게 태어나는 '줄의 일생'을 함께 하는 이들이 바로 보존회 구성원들이다.

이렇게 줄다리기 연행 때 형성되는 일시적 공동체 이면에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공동체가 자리한다. 구심적이고 어찌 보면 닫힌 속성까지 갖고 있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일시적인 개방을 통해 줄다리기 연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구심적이지만 배타적이지 않은, 혹은 원심적이지만 자기중심을 유지하는 속성은 앞서 살펴본 줄다리기 연행에서의 지역 재편 양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표.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 양상'에서 살펴본 기지시와 그 인근 지역의 지연

30 오석민 외, 앞의 책, 35 쪽.

31 기지시줄다리기는 윤년마다 개최되었는데, 2009 년부터 매년 개최하기 시작했다.

공동체를 다음과 같이 재정리해 볼 수 있다.

① 기지시리 : 샘건너, 시장통, 공쟁이, 안틀모시

② 송악면 : 가교리, 방계리, 본당리, 반촌리, 봉교리, 광명리, 복운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월곡리, 정곡리, 한진리, 가학리, 석포리, 고대리

③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 당진읍,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정미면, 대호지면

위에서 ① 지역은 기지시리이다. 기시리리 지역의 참여하는 단위는 자연마을 수준으로 세분되어 있다. ② 지역의 경우 송악면이다. 송악면 지역은 리 단위로 줄다리기에 참여하고 있다. ③ 지역의 경우 참여는 읍이나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기지시리의 경우 동네 차원까지 세분되어 참여하고 있는데 비해, 줄다리기 장소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송악면은 마을 차원에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지시리 지역에서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경우 그 참여 단위가 고을 수준이다.

기지시리를 중심으로 그 거리에 따라 참여하는 단위가 구별되는 양상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일제강점기 이후 1970 년대까지도 기지시줄다리기에 농기를 접수하는 마을은 당진 지역 전반에 걸쳐있었다. 그리고 그 참여 단위는 “기지시리에서는 동네별로 여러 풍물패가 참여하였고, 송악면이나 송산면처럼 가까운 읍면은 마을 단위로, 당진 · 면천 · 합덕 등지에서는 여러 마을이 어울려서 읍 · 면 단위가 한 패가 되어 참여”하였다.[32]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지역 사이에 중심과 주변이 구별되는 양상은 영산줄다리기에서도 나타난다. 편을 가를 때, 영산면인 경우 편 가름의 중심이기 때문에 리 단위로 편이 갈린다. 반면에 영산 이외의 지역은 면 단위로 편을 나누고 있다.[33]

줄다리기 중심 지역의 세분화된 특징과 주변 지역의 미분화된 성격 사이에는 어떤 가치 위계가 함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지역 간의 경계가 설정되고 그 지역 사이에는 중심/주변, 세분화/미분화, 조직화/비조직화, 우리/그들 등의 양항 대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중심의 우리가 갖는 조직화 혹은 질서화의 수준’과, ‘주변의 그들이 갖는 비조직화 양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가 마냥 열려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과 밖의 구분이 있음을 말한다. 공동체의 안과 밖을 가르는 경계가 있는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에 표출된 ‘원형/왜곡’의 문제와 결합된 ‘원주민/외지인’의 갈등[34]에도, 이러한 공동체 안과 밖 혹

32 오석민 외, 앞의 책.

33 한양명, 『영산줄다리기』, 피아, 2005, 56 쪽.

34 “선조들과 원주민들이 해오던 것과 다른 행사를 하자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고 갈등”이라

은 기지시줄다리기의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의 경계 가름과 가치 위계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 대목은 좀 더 섬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공동체의 재편에 있어서 중심 지역과 주변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는 나름의 중심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는 나름의 중심이 있다. 줄다리기 연행 차원에서이건 전승 차원에서 이건 그 중심을 잃지 않는다.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는 보존회를 중심으로 하고, 그 주변을 지연공동체가 감싸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나름의 규칙과 규약을 가지고 있는 보존회는 구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 보존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연공동체는 그 자체로 중심과 주변으로 구별된다. 외적으로 열려있기는 하지만 나름의 중심을 세워 놓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그 중심에 보존회를 구축하고, 그 주위를 지연공동체로 감싸 안는 형국을 띠고 있다. 보존회를 감싸 안은 지연공동체에는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중심이 설정이 되어 있는 공동체는 줄다리기 연행 과정에서 열린다. 줄다리기의 여러 과정들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격은 줄다리기가 소수의 인력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수 몇 몇에 의해서만은 이루어질 수 없는, 본질적으로 대동의 참여가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다. 문제는 줄다리기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어느 정도까지 여는가 하는 점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 연행 참여의 폭과 수준이 비교적 자유롭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이는 연행공동체로서의 어떤 주술적 · 제의적 자격이나 지연적 제한 등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기지시줄다리기에는 월드컵 응원, 연등행렬, 가장행렬, 벼룩시장, 촛불집회 등처럼 많은 사람들을 참여자로 모을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35]

이러한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의 성격은 특정 지역이나 향토 중심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외부로의 개방도 주저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공동체 내부의 기왕의 결속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한 공동보조로서도 크게 구실”을 하려는 지향이 있는 것이다.[36] 이러한 공동체는 적어도 보수적이지도 않고 수구적이지도 않다. 이미 있는

는 언급이나 “줄다리기를 과거부터 해오던 주최세력과 외지인 즉, 문화재가 되면서 참여하는 일명 외지세력 간에 갈등”,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에는 원주민들은 거의 없고 외지에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만 가입해 원주민들은 자신들과 상의도 없이 줄다리기를 진행해 시장사람들은 이득도 없이 피해만 본다.” 등의 언급이 이에 해당한다. 이인화, “무형문화재 제75 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적 재검토 – 이벤트에서 문화재까지 –”,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 19 권 4 호, 2009, 161-162 쪽.

35 안이영노 · 김광옥, “기지시 줄다리기 전통과 재창조”, 『인문콘텐츠』 제 3 호, 337 쪽.

기성의 것을 지켜내는 데 골몰하지 않는다. 그 주체성이 배타적이지 않고, 독선적이지 않기에 그러하다. 현재의 기지시줄다리기는 기성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만 이바지 하지 않는다. 손을 밖으로 뻗고, 사람들을 안아 들이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공동체의 끈 또는 연줄은 밖을 향해서도 손을 뻗고 있다. 그래서 형성되는 연대(solidarity)는 내적인 결속을 의미하면서도 외연을 향한 발전적인 유대이기도 하다.[37]

4. '줄 난장 공동체'의 기억과 낯익은 새 공동체

앞서 인용한 신문 기사나 현재의 양상을 감안한다면, 기지지줄다리기의 규모는 상당하다. 줄다리기를 그 전승 범위와 규모를 기준으로 '마을형'과 '고을형'으로 구분한 견해[38]에 따른다면, 기지시줄다리기는 고을형이라 할 수도 있다. 고을형은 조선시대 읍치가 있던 고을에서 전승하는 까닭에 참여하는 마을이나 놀이꾼·구경꾼의 숫자가 수천 명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된다.

한국의 전통줄다리기 가운데 고을형에 속하는 것으로 영산줄다리기를 꼽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영산줄다리기는 영산 읍치를 중심으로 벌어졌고 그 놀이꾼들은 읍 4 리라고 하는 교리, 성내리, 동리, 서리 등 네 개의 자연마을 사람들이다. 영산에서는 전통적으로 읍성 안에 있던 교리와 성내리를 동부로 인식하고, 읍성 밖에 위치한 서리와 동리를 서부로 인식해 왔다.[39] 이를 바탕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뉘고,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큰 규모로 승부를 겨룬다.[40]

그런데 기지시줄다리기가 벌어지는 기지시리는 읍치가 아니었다. 그리고 장이 서던

36 김열규, 앞의 글, 8 쪽.

37 같은 글, 12 쪽.

38 한양명, 앞의 책, 107-108 쪽.

39 같은 책, 56 쪽.

40 현재 영산줄다리기의 편 구성을 보면, 동부에는 창녕군의 북부에 해당하는 창녕읍, 성산면, 구암면, 대지면, 이방면, 대합면, 유어면 등이 속하고 서부에는 창녕군의 남부에 해당하는 남지읍, 조천면, 부곡면, 길곡면, 계성면, 장마면이 속한다. 영산면은 편 가름의 중심이기 때문에 면 단위로 편이 갈라지지 않고 리 단위로 갈린다. 동부에는 성내리, 교리, 구계리, 죽사리가 속하고 서부에는 동리, 서리, 작포리, 둔암리, 월평리가 속한다. 같은 책, 같은 쪽.

시장의 상인들이 주도하던 것이어서 영산줄다리기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기지시는 과거 면천군의 남쪽과 서쪽 사람들이 한양을 가기 위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이며 시장이 서던 곳이다. 기지시에서는 시장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줄다리기를 연행했다.[41] 시장과 기지시줄다리기 혹은 상인과 기지지줄다리기 공동체와의 연관은 줄을 당기는 행사 명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기지시에서의 줄 당기기 행사의 공식 명칭은 '기지시줄다리기'이다. 그런데 이 명칭은 1982 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인정되면서 공식화된 것이다. 그 이전의 기지시에서 줄 당기기는 '줄 난장'이라 불렀다. 줄 난장이라는 표현은 줄다리기와 시장, 줄다리기 공동체와 상인의 긴밀한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줄 난장의 양상은 전라남도 장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장흥의 경우 1937 년경에 시장을 개축하고서 줄 당기기 난장을 했다는 구술 자료가 있다.[42]

기지시에서의 줄당기기와 상인과의 긴밀한 관계는 다음의 증언에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일제강점기에 기지시줄다리기는 '줄 난장'이라는 이름으로 상인들에 의하여 주도되었으며, 당시 이순태(酒店), 박만복(음식점 만복관), 안찬옥(酒店), 임일성(정육점), 박준산(區長, 농업), 김재천(區長, 상업), 김태호(건어물 상회, 도기장수, 국수집) 등이 많은 기여를 했다. 당시 "줄 난장 한번 하면 3 년 먹을 게 나올 정도였다."고 하며, 실제로 국밥 장사하던 조경수는 줄 난장 한 번하고 주변의 넓은 논을 매입하였다고 소문이 났다. 당시 송악면에서 양조장을 경영하던 이정식(李貞植)도 줄다리기의 후원자였다. 줄 난장을 할 때마다, 줄다리기와 농악경연대회의 우승 상품으로 송아지 2 마리를 내었고, 외지 귀빈들을 접대하였으며, 매년 7 월에 개최되는 씨름 난장에도 우승 상품으로 소를 한 마리씩 냈다. 그 만큼 기지장의 줄 난장이 장사에 도움이 컸다. 당시 "난장이 서면 양조장 샘이 마른다."고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강점기에 당진장에서 기지시줄다리기에서 사용하였던 줄을 사다가 난장을 벌인 적도 있다.
>
> 줄다리기에서는 두목이 선정되어 줄다리기의 재원 마련에서 줄 제작 및 줄다리기 행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체 일정을 지휘하고 담당하였다. 몸줄을 다 꼬면 두목이 심지를 뽑아 수상, 수하 줄을 결정했다. 그런 다음 '고(줄 머리)'를 만들고 줄을 지켰다. 두목은 시장에서 신임을 받고, 지도력이 있으며, 재력도 갖춘 사람 가운데 선정되었는데, 강동석과 그의 매제 김순경이 오랫동안 수상과 수하의 두목을 맡았다. 강동석은 면사무소 뒤 쪽 물위에 살았으므로 수상의 두목, 김순경은 수하 두목을 맡았다. 당시 김순경은 충남 교통 정류장을 운영하였고, 또한 주점이 딸린 여관업을 하고 있었다. 재력을 갖추고 있어서 당제를 지낼 때 당주 역할도 많이 맡았다.[43]

41 이인화, 앞의 글, 163-164 쪽.

42 이경엽,『장흥고싸움 줄다리기』, 민속원, 2013, 94-98 쪽.

43 이 증언은 기지시에서 3 대에 걸쳐 소장수를 했던 강종환(1936 년 생)이 한 것이다. 강종환은

이 증언에 따른다면 줄 난장은 다분히 상업적인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의 “줄 난장 한 번 하면 3년 먹을 게 나올 정도였다.”, “줄 난장 한 번 하고 넓은 논을 샀다.”, “난장이 서면 양조장 샘이 마른다.” 등의 언급이 그 사례가 된다. “틀무시에 농토가 없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로 먹고 사는 곳이다. 전답이 없으니 먹고 살기 위한 한 가지 방업이었을 것 같다. 머리를 잘 쓴 것 같다.”[44]는 언급 역시 줄 난장의 경제적 효용성을 말하는 사례가 된다.

상인들은 줄 난장에서 기획, 후원, 진행 등의 역할을 도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인들 중에서 두목이 선정되어 “줄다리기 재원 마련에서 줄 제작 및 줄다리기 행사 진행까지 전체 일정을 지휘하고 담당”[45]했다는 언급은 현재의 보존회를 떠올리게 한다. 현재 지자체나 축제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재원 마련이나 전체 일정의 지휘까지 도맡아 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상인들은 어쩌면 현재의 보존회 보다 더 적극적이고 확장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줄 난장을 기획하고 후원하며 진행을 한 상인들은 개별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줄 난장에서에 참여한 상인들은 일정한 조직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강종환의 부친인 강동석이 1940년대 당진과 기지장을 총괄하는 ‘시장 영감’을 지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결국 이때의 줄 난장은 보부상 조직인 예덕상무사가 주관했다고 할 수 있다. 시장 영감이라는 것이 보부상 조직인 상무사 임원에 대한 존칭이기 때문이다.[46] 결국 줄 난장은 보부상 조직이 주관한 것이다. 이 조직이 현재의 보존회, 축제위원회, 지자체의 역할을 모두 맡아 수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강종환의 증언에서 확인되듯이 기지시에서 줄을 당길 때에는 기지시 상인들이 적극 지원하였다. 줄을 당기는 장소가 장터이고 상인들이 지원하면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사실에서 볼 때, 시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상인들의 힘만으로 기지시에서의 줄 당기기가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줄 꼬기의 경우 안섬 포구의 뱃사람들이 주

제 2 대 당진군의원, 당진가축시장 중개사, 기지시리 이장,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의 할아버지 강춘삼은 1916년 기지시 명사장(明査長)을 역임했고, 1924년에는 기지시 공창조합(共昌組合) 설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강종환의 아버지는 강동석(1899년-1960년)은 서산, 예산, 온양, 당진 등을 순회하는 소장수였다. 경기도 평택, 오산, 수원장까지도 출입하였다고 한다. 강동석은 1940년대에 당진과 기지장을 총괄하는 ‘시장 영감’을 지내기도 했다. 오석민 외, 앞의 책, 187~188쪽 재인용. 이인화, 앞의 글, 169쪽).

44 같은 책, 186-187쪽.

45 같은 책, 187쪽.

46 같은 책, 197쪽.

도하였다.[47] 이는 줄을 꼴 때 사용하는 줄틀에서 예상할 수 있다. 전국의 어촌에서는 줄틀을 이용하여 칡넝쿨 등의 재료로 닻줄 등배에서 쓰는 줄을 꼬았다. “배를 타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줄틀로 줄을 꼴 줄 알았다.”는 것이다.[48] 안섬에서는 필요에 따라 갯벌에 묻어둔 줄틀을 꺼내어 수시로 뱃줄을 꼬았다고 한다.

줄 제작을 안섬 포구의 뱃사람들이 주도했다는 점은 김기호[49]의 언급에서도 나타난다. 그에 따르면 “줄꼬기 기술자는 첫 번째 정민섭 · 노병직 · 신용봉 · 이순서 · 김복사, 두 번째는 유정술 · 장명남 · 안병국 · 노인석 · 노재근 · 윤수일 · 김기안, 세 번째는 이득천이며 1960 년도는 김양대 · 박승님 · 노주환 · 김창환 · 장기천”이었다.[50] 여기서 이득천이 안섬에 거주하던 이였는데, 그의 주도로 ‘줄을 비는(줄을 꼬는)’ 광경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다.[51] 이득천은 1950 년 경 기지시리로 이사하여 약 15 년간 거주하였는데, 1970 년경까지 기지시 줄 제작에 관여 했다고 한다. 이득천 이전에는 안지옥과 지진성(1901 년 생)이 줄 제작을 담당했는데, 지진성은 현 안섬 당제 예능보유자인 지운기의 부친이다.[52]

줄을 당길 때는 기지시 인근의 농촌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직접 당길 ‘젖줄’을 꼬아서 농기를 앞세우고 참여하였다. 일제강점기 이후 1970 년대까지 기지시줄다리기에 농기를 앞세우고 참여한 지역은 기지시리가 속한 송악면은 물론이고 송산면, 순성면, 신평면, 합덕면, 면천면, 당진읍 등이었다. 기지시리에서는 동네(자연마을)별로 농악패가 농기를 앞세우고 참여했고, 송악면이나 송산면의 경우 마을 단위로 참여했다. 당진읍, 면천면, 합덕면의 경우 여러 마을을 합하여 읍면 단위로 농악 패를 구성하여 참여했다. 이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마을은 대체로 기지장에 출입하는 마을과 일치하였다.[53] 이는

47 같은 책, 14-15 쪽.

48 기지시에서 벌어지는 줄다리기에서 줄 제작을 맡았다고 전해지는 지진성(1901 년 생)의 손자인 지운기(1938 년 생)의 언급이다. 같은 책, 14 쪽.

49 김기호는 1927 년에 태어났다. 기지시 경로당 회장,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장을 역임했다. 『기지시유래』(필사본)을 저술하기도 했다. 이인화, 앞의 글, 169 쪽.

50 김기호, 『기지시유래』, 필사본, 1981; 이인화, 앞의 글, 162-163 쪽 재인용.

51 송악면 월곡리에 거주하는 김의석(1923 생)의 증언이다. 그가 12 살 무렵 보았다고 한다. 오석민 외, 앞의 책, 199 쪽.

52 『기지시 줄다리기』(오석민 외, 민속원, 2006)에서는 “1970 년대 초반까지 기지시리에서 줄을 꼴 때면 안섬의 주민들을 불렀다고 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줄틀로 동아줄을 꼴 줄 알았다고하는데, 안섬에 거주했던 안진옥(생몰 미상), 지진성(1901-1969), 이득천(1903-1975) 등은 기지시줄다리기 행사가 있을 때 기지시리에 ‘도편수’로 와 줄 꼬는 작업을 지휘한 인물들이다. 특히 이득천은 1950 년대에 기지시리로 이사하였고, 여러 해 줄 꼬는 작업을 직접 지휘하였다고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같은 책, 14-15 쪽.

기지시에서의 줄 당기기가 단순한 시장의 행사가 아니라 시장권을 하나로 묶은 공동체의 놀이[54]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전까지의 기지시 줄 난장은 예덕상무사 기지시 임소(任所)를 중심으로 하는 상인들, 주변 포구의 어민들, 그리고 주변 농촌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행사였다고 할 수 있다. 기지장에 국한된 행사라기보다는, 기지장에 의존하는 주변 농촌과 여러 포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광역적 행사인 것이다.[55] 기지시 줄 난장은 '상인들의 기획과 후원 아래, 어민들이 줄을 꼬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광역화된 축제'였다고 할 수 있다.

'상인들의 만든 판에, 어민들의 지혜가 덧붙여지고, 농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이루어진 것'이 기지시 줄 난장이다. 이 표현 속에는 기지시 줄 난장에 참여한 공동체의 생업이 단일하지 않았음이 함축되어 있다. 기지시 줄 난장을 통해서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어민은 그 지혜와 기술 제공에 대한 나름의 보상을 받았을 것이다. 또한 농민은 줄 난장을 통해 자신들의 신명을 표출하고 대동의 경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기시장 권역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강화될 수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로만 줄 난장이 벌어졌을까?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욕망 충족만을 위해 기지시 줄 난장 공동체가 움직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러한 의문의 해결 과정에서 김재호의 '전통적 시장관' 관련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56] 기지시 줄 난장이 성립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다양한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관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상인들은 줄 난장에 모여드는 사람들에게서 얻는 이익이 있었고, 그들이 지향하는 시장 선전과 번영이라는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줄 난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축제적 경험의 충족이라는 욕망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양한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줄 난장에 모여들고 공동체로 형성한 것은 시장에 대한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시장의 성립에는 하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 가장 큰 관건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다.[57] 우리에게는 "장시는 바로 하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정신적

53 같은 책.

54 같은 책, 11 쪽.

55 같은 책, 같은 쪽.

56 김재호, "사시(徙市) 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 『한국민속학』 50, 한국민속학회, 2009.

물리적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물류의 흐름 또한 원활하여 장시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것이라 보는 전통적 관념"[58]이 있었다. 기지시의 경우 그러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마전굿[59]을 통해 시도했다. 줄 난장을 둘러싼 풍수 지리적 담론 역시 이러한 하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염두에 둔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60]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은 줄 난장을 통해 시도되었다. 기지시 줄 난장을 통해 사람들은 함께 줄을 꼬고, 옮기며, 당기는 경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유대감은 훌륭한 소통의 사례가 된다. 결국 줄 난장은 하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벌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지시의 번영은 하늘의 뜻임과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시장관에 의거한 관점은 줄 난장이 전통적 줄다리기의 후대 모습 혹은 그 변종으로 보는 시각과는 다른 것이다. 줄 난장은 전통적 시장관에 의거한 문화적 장치 중에 하나로 보는 시각이다.

기시지 줄 난장과 관련된 기억은 20 세기 초반부터 비롯된다.[61] 그 기억의 편린들을 따라가다 보면, 기시지 줄 난장은 1922 년경에 비롯되어 상인 조직의 기획과 후원으로

57 위의 글, 286-287 쪽.

58 위의 글, 273 쪽.

59 마전굿은 마전 곧, 싸전마당에서 하는 것으로 그 해 풍년이 들어 기지장으로 곡식이 많이 나오라고 하는 굿이다. 예전에는 당제를 지낸 후 마전에서 지냈다고 한다. 이러한 굿에 대한 인식은 시장이 수요과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와 인간 사이의 제의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마전굿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인화, "기지시줄다리기",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848 쪽; 오석민 외, 앞의 책, 202-204 쪽.

60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한 풍수지리적 유래는 크게 두 유형이 전한다. 첫 번째 유형은 "기지시(틀모시)는 지형이 베틀 형국으로서 옥녀직금(玉女織錦)하는 형국이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윤년 드는 해에 온 마을 주민들이 극진한 정성으로 당제를 지내고 줄을 다려야 모든 재난을 몰아내고 예방하며 태평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두 번째 유형은 "틀못시는 땅 모양이 지네 형국이니 지네 모양의 밧줄을 만들어 매 윤년마다 한 번씩 줄을 다려 주게 되면 사람들이 지네의 혈을 밟게 되고 지네의 허리를 늘여 놓아 지네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기지시 지형을 바라보는 시각은 두 유형이 서로 다르다. 하지만 지형이 갖고 있는 한계를 줄다리기를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지향이나 집단의 힘으로 재액을 구축하려는 의도는 동일하다. 이우영, 『기지시줄다리기』, 집문당, 1986; 구자성, "기시지줄다리기에 얽힌 전설", 『내포문화』 3 호, 상록인쇄사, 1991; 이인화, "기지시줄다리기", 『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849-850 쪽.

61 기지시 줄 난장과 관련된 기억들은 다음의 논저들을 참고했다. 김기호, 앞의 책; 이인화, "무형문화재 제 75 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적 재검토", 『한국사진지리학회지』 제 19 권 4 호, 2009; 오석민 외, 앞의 책.

이루어지다가 일제 강점 말기부터 한국 전쟁 시기까지 중단된다. 1960 년대와 1970 년대 초반까지는 기존의 상인 중심의 후원과 기획에 덧붙여 재향군인회, 기시시청년 10 인회, 기지시번영회, 기지시반장 · 개발위원회 등의 참여가 이루어진다. 기억을 통해 재구할 수 있는 기지시 줄난장의 양상은 상인 중심의 광역화된 대동놀이이다. 여기에는 상인이 난장판을 제공하고, 어민이 지혜와 기술을 제공하며,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기시지 상인들이 난장을 만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들만의 닫힌 난장이 아니다. 특정 시장에만 한정된 것도 아니다. 시장이 갖는 속성 상 개방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좋다. 애초부터 난장은 원심적이고 열려있다.

기시시 줄난장은 1986 년 이후[62] 상인 조직 중심의 기획과 주도에서 지역 유지의 주도를 거쳐 보존회가 그 전승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상인 조직에서 보존회로 전승공동체의 중심이 옮겨감에 따라 여러 변화가 있었다. 이는 줄 난장과 현재 보존회 중심의 줄다리기 사이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공동체와 관련하여 그 차이를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수상편과 수하편의 두목의 역할을 누가 맡는가 하는 점이다.[63] 줄 난장 시절의 수상과 수하의 두목은 주민 가운데 체격이 장대하고 신망 있는 인사가 맡았다. 두목은 줄 난장과 관련된 전체 행사를 주관했다. 일제 강점기부터 해방 무렵까지 두목을 맡았던 이는 상무사 임원이었던 강동석과 김순경이었다. 하지만 보존회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전체 행사 진행의 책임은 보존회가 맡고 있다. 두목 역시 현재는 보존회 구성원 중에서 선발한다.

상인 중심의 조직과 보존회 중심의 조직이라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줄 난장 공동체의 성격과 현재의 줄다리기 공동체의 성격은 묘하게 닮아 있다. ‘광역화되고 원심적인 공동체 지향’, ‘지연과 혈연을 뛰어 넘는 초월적 공동체성 모색’, ‘집단 외적 열림의 양상’, ‘자족적 지역성에서 해방되는 횡적 열림의 모습’ 등이 그러하다. 현재의 보존회가 중심이 되는 줄다리기 공동체에서는 새롭게 종합 축제를 지향하며 공동체를 열어 놓고 있다. 그 개방적 공동체의 모습은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줄 난장 공동체와 많이 닮아 있다. 줄 난장은 상인 중심의 광역화된 대동놀이였다. 상인 제공하는 난장판에 어민의 지혜가 제공되고 농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난장이었다. 그 난장은 시장이었기에 개방적이어야 했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

62 김기호에 의하면 기지시 줄 난장은 1974 년이 마지막이라 한다. 1974 년 기지시 반장 · .개발위원회 최로 줄 난장 마지막 행사가 벌어졌다고 한다. 이때 비용은 상인들이 부담했다고 한다. 김기호, 앞의 책, 29 쪽; 이인화, 앞의 글, 162 쪽.

63 이와 관련된 이하의 서술은 다음을 참조. 오석민 외, 앞의 책, 92-93 쪽.

록 좋았다. 보존회 중심의 조직이 만들어 내는 줄다리기 공동체가 예전의 줄 난장 공동체와 다른 것임은 분명하지만, 낯설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는 과거 줄 난장이 지역 축제의 전형이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5. 닫는 말

공동체를 중심으로 개괄해 본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체의 풍요를 기원하고, 사회적 결속과 화합, 연대감을 도모하기 위해 전통적 줄다리기를 연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전통줄다리기 연행에는 남녀노소가 평등하게 참여하며 다차원의 의사소통을 한다. 이를 통해 줄다리기는 공동체 구성원의 연대와 귀속감, 그리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줄다리기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줄 제작에서부터 줄 당기기까지의 일련의 줄다리기 연행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안녕을 추구하며 일체감을 공유한다. 남녀노소를 제한하지 않는 줄다리기 연행의 참여 방식은, 줄다리기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다. 또한 재액 구축이나 공동체의 안녕이 줄다리기 연행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나 인식은 줄다리기와 관련된 공동체를 결속시키고 지속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기도 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역시 이러한 한국 전통줄다리기의 일반적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 기지시줄다리기를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기지시 줄다리기의 과거는 상인 조직이 주도하고 기획한 줄 난장이었다는 점, 단일한 생업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생업 집단이 함께 줄다리기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 등이 주목되었다. 특정 마을이나 고을이 아니라 시장 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놀이였다는 것 역시 주목되었다. 그리고 그 주목 사항들은 묘하게도 현재의 기지시줄다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필자가 ‘묘하게도’라 표현한 이유는 이른바 원형 그대로의 고착된 전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새롭게 지향하는 종합 축제로서의 모습의 전형을 과거 기지시 줄 난장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역으로 말한다면, 과거 기지시 줄 난장이 현재 기지시 줄다리기가 지향하는 종합 축제의 전형이었기에 나타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지시줄다리기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필자가 새삼스럽게 주목해야 할 것으로 염두에 둔 것이 있다. 그것은 줄다리기 공동체를 운용하는 지식 혹은 지혜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을 리더십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줄다리기 자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용이한 놀이 종목이다. 외적 제한만 가해지지 않는다면 별다른 준비나 기술 없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그 연행에 어떤 기술이나 기교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누구나 연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손쉬움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는 엄청난 장관을 만들어낸다. 엄청난 규모와 인원이 만들어내는 장관인 것이다. 함께 힘을 내어야만 움직이는 줄, 하나의 힘으로 모아야만 이길 수 있는 줄 당기기 등은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러한 공동체 의식과 연대감을 이끄는 방식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그것은 대규모의 인력을 운용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줄다리기 공동체를 운용하고 이끄는 리더십에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줄을 꼬는 기술과 같은 개인적인 수준의 유산에 편향된 관심을 기울인 감이 없지 않다. 그것 역시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염두에 둘 때 주목해야 할 것은 줄다리기 연행 전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운용하는가 하는 문제나, 대규모 인력을 적절하게 지휘하는 지식이나 지혜이다. 줄다리기 공동체의 화합과 갈등에 대한 조정까지 포괄하는 그것들은, 공동체와 관련한 본 논의 과정에서 새삼 떠오른 새로운 주목 사항이 된다. 혹 줄다리기 종목에 보유자를 지정하게 된다면, 또는 줄다리기에서 전승되어야 할 핵심 기·예능을 뽑게 된다면, 그것은 줄다리기 공동체를 운용하는 방식과 관련된 지식이나 지혜가 되어야 한다. 그것은 대동을 가능하게 하는 전통적 리더십일 수도 있고, 기획력일 수도 있다.

[참고 문헌]

구자성, “기시지줄다리기에 얽힌 전설”,『내포문화』3호, 상록인쇄사, 1991.

김열규, “구술 문학과 공동체”,『구비문학연구』제19집, 2004.

이우영,『기지시줄다리기』, 집문당, 1986.

김재호, “사시(徙市) 기우제의 기우원리와 시장의 소통성”,『한국민속학』50, 한국민속학회, 2009.

안이영노 · 김광옥, “기지시 줄다리기 전통과 재창조”,『인문콘텐츠』제3호.

오동연,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 20여만 명 참여-”,2012.4.15.,『e-당진뉴스』,http://www.edjnews.com/sub_read.html?uid=26053&section=sc7&section2=(2015.3.26).

오석민 외,『기지시줄다리기』, 민속원, 2006.

이경엽,『장흥고싸움 줄다리기』, 민속원, 2013.

이인화, “기지시줄다리기”,『한국축제의 이론과 현장』, 월인, 2000,

이인화, “무형문화재 제75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적 재검토 - 이벤트에서 문화재까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제19권 4호, 2009.

최근수,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 대화합의 마무리 - 기지시줄다리기축제 -, 30여 만 명 참여해”,『大田투데이』, 2014.04.13., http://www.daej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317797(2015.3.29).

한국지방정책연구원,『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 진단평가 및 축제발전방안 연구』, 당진군, 2010.

한양명, “한국대동놀이 연구 - 편싸움을 중심으로 -”,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1993,

_____,『영산줄다리기』, 피아, 2005.

유의주, “당진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시작돼”,『연합뉴스』, 2015.02.1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2/17/0200000000AKR20150217067400063.HTML?input=1179m(2015.03.30).